

7800만원대로 추락한 비트코인... “반등 시그널은 아직”

美 연준 기준금리 인하 예고에도
고래투자자 매도, ETF 자금 유출
헤리스 부통령 지지율 상승도 영향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7800만원대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했지만 대량 매도세가 반복돼 상승 동력을 잃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확정되기 전까지 가격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만 7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5일 6만5000달러 터치 이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거래소에서도 7800만원대에 거래되면서 한 달 만에 8000만원 밑으로 하락했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비트코인 가격 하락' 이미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하락 원인으로 고래투자자(대형투자자)의 매도세를 꼽고 있다.

고래투자자 움직임을 추적하는 '웨일얼러트'에 따르면 한 고래 투자자의 특정 지갑 주소에서 비트코인 가격 급락 직전 1억4181만 달러(약 1883억원)

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인 크라켄으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고래들 역시 최근 비트코인이 6만5000달러를 유지하자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고래들의 움직임은 시장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이번 매도세가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도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총 1억7560만달러가 순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2일 이후 최대 순유출로 그레이스케일 GBTC에서 7020만 달러, 아크21웨어스 ARKB에서 6500만달러, 비트와이즈 BITB에서 1640만달러가 순유출됐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밀리고 있는 점도 비트코인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전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

지 않고 있다.

이처럼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약제만 가득하고 뚜렷한 상승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단기간 가격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매트릭스포트는 공식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통상 비트코인의 9월 수익률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9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올해는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과 곧 치러질 미국 대선 등 추가 압박이 더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주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9월 비트코인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토종 바이오시밀러’ 출격 잇따라 약가 40% ↓... 환자 선택폭 넓힌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즈텍’ 론칭
동일제형 대비 약가 40.5% 저렴
셀트리온제약, 졸레어 등 3종 출시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토종 바이오시밀러(복제약)가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가격을 30~40% 가량 낮춰 국내 환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최초 허가를 받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에피즈텍’을 론칭하고 마케팅을 본격화했다고 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일 인천 송도에서 국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에피즈텍 론칭 심포지엄을 가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품 출시와 관련해 단독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에피즈텍의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약가는 129만8290원

으로 출시됐다. 지난 7월 1일 고시 기준, 동일 제형의 스텔라라 약가(218만2000원)보다 40.5% 저렴한 가격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에피즈텍을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에 폭넓은 대안을 제공하고 합리적 약가로 국가 건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유럽에서도 공인한 효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환자 삶의 개선에 나간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제약은 보건복지부 약가 고시를 거쳐 바이오시밀러 제품 3종을 국내에 출시하고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는 각각 알레르기질환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오리클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텐젤트’ 등이다.

지난 5월과 6월 유럽과 국내에서 각각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중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 승인받은 오리클로는 국내에서 같은 성분 중 처음 제품

을 출시하며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오리클로는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처방되며 75mg과 150mg 두 용량은 각각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28% 할인된 10만2960원과 19만5079원에 급여 책정됐다.

지난 6월 국내에 이어 이달 유럽서 허가를 획득한 스텔라라는 국내에서 판상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CD), 궤양성 대장염(UC) 등 오리지널 의약품이 보유한 전체 적응증에 처방이 이뤄진다. 프리필드시린지(PFS)제형 45mg/0.5ml와 90mg/1ml 두 용량 약가는 오리지널 제품 대비 약 26% 저렴한 129만8290원, 134만2320원으로 정해졌다.

지난 5월 국내에서 허가 받은 아이텐젤트는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병적 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등에 사용된다. 약가는 오리지널보다 약 34% 저렴한 33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장인화 한-호 경제협력위원회(KABC) 위원장(포스코그룹 회장·오른쪽)과 마틴 퍼거슨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 위원장이 2일(현지 시간) 호주 퍼스에서 열린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한국-호주, 경제협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한국과 호주의 경제협력 강화를 이끈다.

장인화 회장은 9월 2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KABC) 합동회의’에 참석해 한국을 대표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도모했다.

1979년에 시작해 올해 45회째를 맞이한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합동회의는 양국 경제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파트너십을 증명하는 유서 깊은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양국 정·재계에서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한·호주자유무역협정(KAFTA) 체결 10주년으로, KABC가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깊이 일조해 온 것에 대해서 양국 정부 및 경제인 간 공감대를 형성하며 의미를 더했다.

장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호주는 광물, 에너지 등 전통적인 자원협력을 넘어 이제 친환경 소재 및 인프라 혁신을 아우르는 청정 미래 개척에 동참하고 있다”며 “양국이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과 기회를 함께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스코그룹은 80년대 초부터 철광

석,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호주와 자원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누적 투자비는 지금까지 4조원에 달한다. 또한 매년 약 70억 달러 이상의 철강 원료를 호주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이는 총 원료 구매량의 70%에 달한다.

특히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며 우방국끼리 연합해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이 확대되는 가운데 포스코그룹은 수십 년간 자원개발 협력을 다져온 호주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 양국의 경제·산업 발전에 앞장설 방침이다.

올해 합동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및 스타트업, 방산·항공우주, 식품 및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양국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장 회장은 3일과 4일 양일간 돈패럴 연방 통상관장관, 매들린 킹 연방 자원장관, 로저 커서호주총리 등 호주 정부 인사와 주요 기업 최고경영층과 잇달아 면담하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한다. 또 4일에는 호주 원료 파트너사인 로이힐과 공동 후원해 건립한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공명장 준공식’에 참석해 호주 참전용사분들의 숭고한 헌신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기재부, 57.3조 감축... 14개 기관 건전화 노력 반영

» 1면 ‘공공기관 재정 적신호...’서 계속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에 따른 영향이다.

2028년 SOC 부채 규모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75조7000억원 늘어난 345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6.2%p 증가한 185.0%다.

금융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이 확대돼 2028년 부채는 11조2000억원 늘어난 137조

7000억원, 부채비율은 4.6%p 줄어든 100.0%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한전·가스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총 57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재정건전화 노력은 ▲자산매각 9조1000억원 ▲사업조정 19조3000억원 ▲경영효율화 11조9000억원 ▲수익확대 6조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8000억원 등이다.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재정건전화계획과 비교해 5조1000억원을 추가 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